

# “힘 다한 화살 다시 떨어져 내생 초래”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제행이 무상하니, 이것이 생멸법이다. [諸行無常 是生滅法]” 하신 말씀을. 그리고 “힘이 다한 화살은 다시 떨어지니, 뜻대로 되지 않을 배생을 초래할 것이다. 여찌 무위의 실상문[無爲實相門]을 한 번에 뛰어넘어 여래지에 곧바로 들어감만 같으리요.”라고도 하셨다. 아쉽게도 그대는 이 정도의 근기가 아니므로, 옛 사람이 세우신 방편 문에서 널리 지해(知解)를 배워야 하리라.

##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행 <25>



범어사 주지

배우가 눈뜬 바가 있기 때문에, 알음알이를 배우도록 권하는 것이다. 안목을 여는 체험이 없는 입장에서 의하면 의하는 것만큼 어리석어지지만, 안목을 눈뜬 입장에서 배우고 익힐수록 방편지가 새로워져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제행이 무상하니, 이것이 생멸법이다.”는 《열반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구계로 일명 ‘설산계(雪山偈)’ 혹은 ‘제행무상계’라고도 한다. 이어지는 대목은 ‘생멸이 멀해 그치면, 열반락에 이른다.[生滅已 寂滅爲樂]’이다. 그리고 ‘무위실상문’ 구절은 영가현각(永嘉玄覺, 665~713) 대사의 절창 <증도가>에서 인용한 것이다. 실상문이란 ‘일체법 그 자체가 진실한 이법(理法)을 현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다.

지공이 말하기를 “세간을 뛰어넘은 눈 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대승의 법약(法藥)을 잘못 먹게 된다.”고 하였다.

공부한 후라도, 모든 일을 밝게 알고 있는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 가르침을 구해야 한다. ‘이미 나도 안목을 열어 선지식이 되었는데, 따로 선지식을 구할 필요가 없다.’며 증상만을 낸다면, 소위 ‘선지식병’에 걸리게 된다. 그러면 다시 어지러워져서 갈피를 못 잡을 때, 올바른 길로 인도 받을 기회를 잃는 것이다.

네 지금부터 행주좌와에 늘 무심(無心)을 닦아 오래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대는 역량이 부족해서 단박에 뛰어넘지는 못한다. 다만 3년이나 5년 혹은 10년만 지나면, 반드시 들어갈 곳을 열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그대는 이렇게 해버려 못하고, 굳이 마음을 가지고 선(禪)을 배우고 도를 배우려 하니, 그것이 불법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서두를 것이 없이 믿음을 내고 기다리면 자연히 이루어진다. 조심해서 시간 보내면 5년, 10년 시간이 흐를수록 달라질 것인데, 믿지 않고 허망한 짓을 하니가 공부가 되었어도 병통이 생기는 것이다. 아무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좇는다 하더라도, 생각을 일으켜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유위의 생멸법은 불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여래의 설법은 모두 사람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 ‘제행무상 이것이 생멸법’ <열반경>의 유명한 사구계

안목에 눈떠 배우고 익히면 방편지가 새로워져서

자신뿐 아니라 타인도 이익

눈 밝은 스승 만나지 못하면

대승의 ‘法藥’ 잘못 먹게 돼

선지식 병에 걸리게 되면

갈피 못잡아 바른길 잃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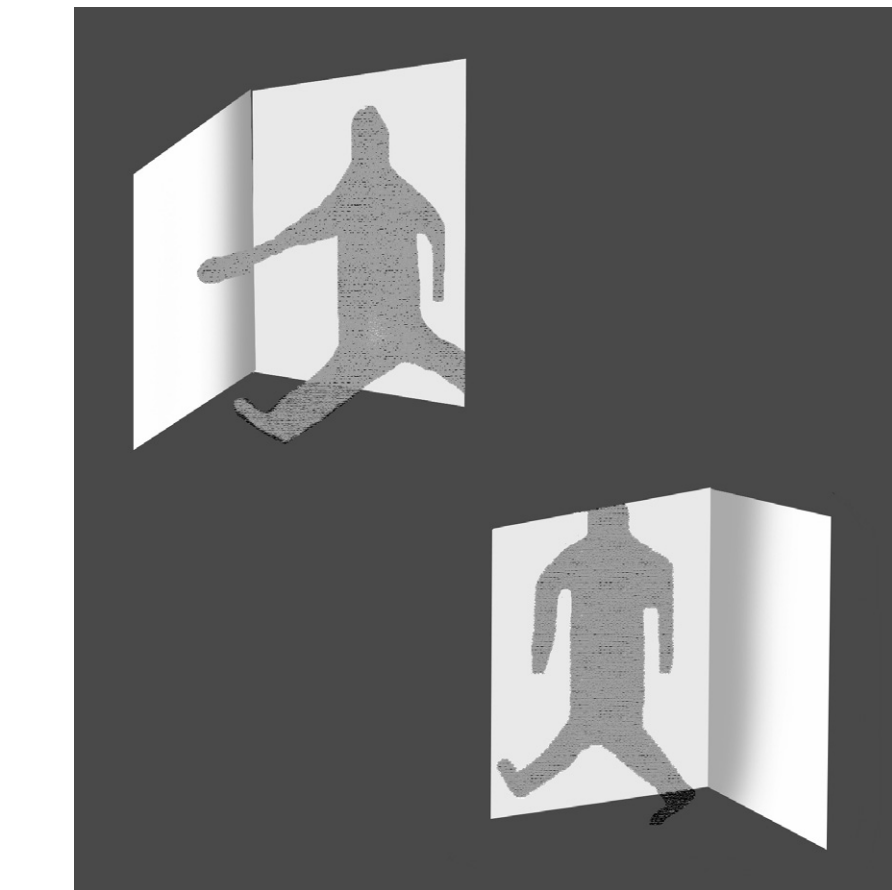
마음갖고 禪과 道 배우는 것

불법과 무슨 상관 있겠는가

유위의 생멸법은

불법과 아무런 상관 없다

언을 법 없는 것이 ‘아늑보리’



그림·박구원

누런 나뭇잎을 돈이라 하여 어린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따라서 법이란 결코 실다운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중생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알게 될 때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을 배운다는 것이다. 믿음을 잃어 중간에 그만두지 않도록,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면, 방편에 매달려서 그것이 공부인양 오해하지 않는다. 방편을 배우고 숙지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수단에 집착하여 머무르며 시간 낭비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공부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시간 보내는 것이 공부보다 더 빠를 수 있다. ‘누런 나뭇잎’ 이야기는 《열반경》에 나오는 우화다.

만약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 종문(宗門)의 사람이 아니다. 또한 그대의 본래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경에 이르러, “실로 얻을 만한 어떠한 법도 없는 것을 아늑보리라 한다.”고 하였다. 만약 이 뜻을 알아챈다면, 불도(佛道)와 마도(魔道)가 모두 그릇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근본 자리에서 보면, 법이라는 그림자도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기에 실답다고 할 수 없다. 선은 본래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 실체를 등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받아지해와 무명업식이 모두 본래 없음을 밝힘으로써, 단도직입으로 진리당처의 핵심오의를 드러나게 한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인 있는 이들에게는 참선을 통해 실질적인 수행과 깨달음의 문을 열어준다.

본래 청정하며 투명하고 밝아서 모나지도 둥글지도 않으며, 크지도 작지도 않고, 길거나 짧은 형상도 없다. 번뇌도 열반도 없고, 미혹과 깨달음도 없다. 그러므로 “분명히 보라. 한 물건도 없다.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 항하사 대천세계(大千世界)는 바다의 물거품이요, 모든 성현들은 스치는 번갯불 같다.”고 한 것이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제행은 무상하다. 하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실상 자리를 투철하게 깨달아 알았다면, 남에게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정 스스로 밝게 사무칠 수는 있다.

모든 것이 진실한 마음만 갈지 못한다. 법심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부처님과 조사와 더불어 동일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을 알아들었다면, 마땅히 크게 노력해야 한다. 이번 생을 마칠 즈음에는, 배워서 숨이 들이쉬는 숨을 보장치 못한다.

어떤 것이 열심히 하는 것인지 아는 사람만 안다. 모르는 사람은 부지런히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다 저지레지만, 아는 사람은 하는 바 없이 하면서 잘 살피 쓴다.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천지현격이다. 안다 하더라도, 그 수단을 배우는 모습을 보면 그 차이를 숨길 수 없다. 정신없이 살았는지 뼈저리게 정진했는지,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마련이다.

##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㉔



### 모든 중생이 나와 같아지기를 발원하였다.

<법화경>

#### ‘소승과 대승’의 개념

옛날에는 그랬다. 불교를 크게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누었다. 소승불교는 열등하고 대승불교는 우수한 불교라고 말하였다. 그럼 어떤 불교가 소승불교였는가? 시간적으로는 대승불교 이전의 모든 불교가 다 소승불교이고, 지역적으로는 동남아시아의 불교가 소승불교이다. 그렇게 가르쳤다.

이런 방식의 분류가 잘못된 것임은 현대에 들어오면서 지적된다. 그 지적의 역사가 현대불교학의 역사인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어떤 책에서도, 어떤 교실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만약 그런 식으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나누다면, 자칫 부처님 당시의 불교도 다 소승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실제로 중국에서 ‘아함경’이 번역되었지만, 널리 읽히지 못한 데에는 이러한 점 하나 하나의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를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소승이라는 말보다는 부파불교라든지 하는 개념으로, 대승불교 이전의 상황을 설명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그런데 정말 ‘소승’은, 없는 것일까? 아니, 없어도 좋은 것일까? 불교 사적 시대구분으로서의 용도폐기되어야 할 말이지만, 이념형(理念型)으로서의 여전히 유효한 것이 아닐까.

올바른 불자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 사람을 보면, “야, 너 그렇게 하면 소승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경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올바르지 못한 관점과 자세를 갖추고 있는 ‘소승’은 <아함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고, 대승경전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 동남아의 불교도들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 북방불교의 신자들 사이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 ‘소승과 대승’의 기준

누가 소승이며, 누가 대승인가? 그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일까? <법화경> 방편품에서, 나는 그 해답을 발견하였다. “다른 사람도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대승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소승이다.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깨달기를 바라는 사람은 대승이고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깨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소승이다. 다른 사람이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대승이고 다른 사람의 행복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소승이다.

다.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부자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대승이고,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나는 알 바 없다는 사람은 소승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물음이 제시된다. 그래, 좋다.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깨달기를 바란다. 그런데 일단 나부터 깨달아야 할 것 아닌가? 그러나 내가 깨달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달라. 그 동안은 나의 깨달음에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떨까? 그것이 바로 소승이다.

나는 <법화경> 방편품의 말씀을 동시적(同時的)으로 읽는다. 모든 중생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오늘 내가 깨달음



그림·박구원

을 향해서 1킬로 전진하였다면 그 1킬로의 전진을 다른 모든 중생이 다 동시적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중생은 부처님으로부터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전수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아가는 과정에 동시적으로 참여하도록 초청받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회향(廻向)이 있다. 내가 오늘 <법화경> 방편품을 읽고 공부했다. 그렇다면, 거의 동시적으로 회향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모든 중생 사이에는 차이가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방편품을 읽고 공부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아, 그럼에도 그 상황을 그냥 두고 본다면, 어느덧 나는 소승이 되고 만다. 무서운 일이다.

다행히 회향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로 열려있다. 지금 현대인들은 그런 점에서 행운아들이다. 인터넷이 있고 SNS가 있다. 길은 얼마든지 있다. 다만 뜻이 없을 뿐이지. 그렇게 뜻(願)없는 사람 그를 우리는 ‘소승’이라 부른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 공 고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본 대일불교조계종 중단 산하 선원에서 호법봉사단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수행, 정진과 불법교에 원력을 세우고 계신 제방에 계시는 중단 여러 대덕 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미려하시니, 불법수호와 불교권익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매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봉사단은 시봉자의 자세로 일선 ‘포교활동’과 ‘사회정화, 복지구호’ 증진을 도모하고, ‘학술, 문화 교육’ 사업을 위한 ‘출판물간행’ 사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봉사단에 제방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언제나 법향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원하십시오.

불기 2557년 6월 12일

대일불교조계종  
호법봉사단  
선원장 구룡 합장

- 호법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8-1번지 (KT사옥 2층)  
전화 053)768-1339, 3173 / 전송 053)741-1346  
핸드폰 010-5367-1340 (선원장)

“네이버” 검색창에서 “대일불교”를 검색해 보세요.

## 영남범음범패

### 제2기학인모집

- ▶ 실용의식 : (천수경) (상단, 각단예불) (천도, 49재, 모든의식)
- ▶ 작법무 : 천수바라, 황의재바라, 오공양작법 등
- ▶ 교육과정 : 6개월
-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 교육대상 : 제한없음
- ▶ 개강일시 : 2013년 6월 17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까지)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578 대무량사 총무원 (불교회관)
- ▶ 문의처 010-5065-5690 011-887-4591

사) 한국미륵불교 부설  
불교대학 범패원

## 고(古) 건물 수리 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 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락처 : 053)964-0858  
휴대폰 : 011-804-1748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 사찰매매 잔금 대출
- 불사 자금 대출
- 기타 대출 상담

전문상담 : 전무 사일영 010-3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사찰안내

경북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 118-1번지 외

- 토지 1,220평
- 대웅전 45평
- 요사채 38평
- 매매가 7억 5천만원

전문상담 : 전무 사일영 010-3527-1037  
팀장 장재영 010-4505-7180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